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서울 Seoul
Character & Licensing
Fair 2013

캐릭터라이선싱 페어 2013 방문기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3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열렸다. 참가업체 250개, 바이어 약 3,000명 (해외 130명, 국내 3,000명)으로 전시규모로는 코엑스 행사 중 5위, 관람객 기준으로는 1~2위 행사이다.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는 국산캐릭터산업의 성장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어렸을 적, 만화를 통해 알고 있던 캐릭터들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캐릭터페어를 관람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즐거웠던 기억을 가지고 대학생이 된 오늘날 들뜬 마음으로 올해 12주년을 맞이한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에 다녀왔다.

캐릭터페어를 방문한 날은 18일 목요일과 20일 토요일로 총 두 번이었다. 아직 학생들이 방학이 아니라서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 주말인 토요일도 방문했다. 삼성역에 도착을 하니 코엑스 쪽으로 가는 길 기둥에 캐릭터페어 포스터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캐릭터페어 입구에 도착했다. 18일에 일반 관람객은 11시부터 입장이라서 출입제한을 받았지만 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의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부터 들어갈 수 있었다. 입구를 지나고 캐릭터페어로 들어간 순간 여러 캐릭터들이 보이고 다양각색의 크고 멋진 부스들이 보였다. 어렸을 때에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대학생이 되니 눈앞에 펼쳐진 것을 모두 담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이 본다면 얼마나 신기해하고 좋아해 할지 어린 꼬마들의 행복한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상대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나 놀이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열배는 더 캐릭터페어를 즐길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아침 일찍 코엑스를 방문한 이유는 '정품 캐릭터 사랑 서포터즈 발대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 캐릭터 상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지금, 이제부터라도 정품캐릭터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였다. 여야국회의원, 스포츠선수, 연예인 등 많은 공인들의 응원의 말과 함께 불법복제캐릭터 상품은 만들지도 사지도 말자는 주제로 공원을 펼친 개그콘서트의 정여사팀, 그리고 2013년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의 홍보대사인 에이핑크의 무대까지 펼쳐졌다. 이런 좋은 행사를 일반관람객들도 본다면 한명이라도 더 정품캐릭터를 애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발대식이 끝나고 일반관람객들과 함께 A홀에 있는 부스들부터 차근차근 관람을 했다. 역시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그래도 평일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인기 있는 부스의 이벤트는 줄을서서 체험할 정도였다. 대부분 단체로 견학 온 유치원생이나 아기 유치원을 끌고 온 엄마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었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온 바이어도 있었다.

나는 사전에 캐릭터라이선싱페어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열리는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했다. 덕분에 시간에 맞춰 이벤트무대에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캐릭터별로 자체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해당 부스에 들리지 않고는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알기 힘들었던 것은 조금 아쉬웠다.

여러 가지 캐릭터들 중 10주년을 맞이한 (뽀롱뽀롱 뽀로로)와 아이돌 육성 애니메이션인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그리고 웹툰 작가인 이빈을 만날 수 있었던 <안녕 자두야



구분	7월 17일(수)	7월 18일(목)	7월 19일(금)	7월 20일(토)	7월 21일(일)
10:00	개막	캐릭터서포터즈발대식	영화/애니메이션 상영 - 베어스쿨	영화/애니메이션 상영 - 루루로로	영화/애니메이션 상영 - 체브라사카
11:00	후토스 미니미니 댄스이벤트	후토스 미니미니 댄스이벤트	프리즘스톤 홍보대사 퓨리티공연	후토스 미니미니 댄스이벤트	프리즘스톤 홍보대사 퓨리티공연
12:00	후토스 미니미니 댄스이벤트	후토스 미니미니 댄스이벤트	자두의 놀이학교	자두의 놀이학교	자두의 놀이학교
13:00	어리와 함께하는 골프대회	어리와 함께하는 골프대회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홍보 대사 퓨리티공연	캐릭터페어 '키즈 패션쇼 & 모델 콘테스트'	세계최초 캐릭터걸그룹 '하트래빗걸즈' 공연
15:00	뽀로로 상여롱 쇼	영화/애니메이션 상영	모바일게임 시연 및 게임대회	후토스 댄스 이벤트	모바일게임 시연 및 게임대회
17:00	캐릭터 OX퀴즈 이벤트	캐릭터 OX퀴즈 이벤트	구름땡 그린 콘서트	뿌까와 비보잉	폐막

※ 이벤트 무대 스케줄 표 재 편집



> 부스까지 눈길을 끄는 부스들이 많았다. 특히 뽀로로 부스는 10주년을 맞이한 덕에 100부스 규모로 전시되었고, 행사장 안과 밖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전시물들이 많았다. 특히 캐릭터 페어 줄구 쪽에 다양한 옷을 입고 서로 다른 동작을 취한 수많은 뽀로로들의 모습이란 정말 놀라웠다. 토요일에는 <안녕 자두야> 부스에서 사인회를 위해 캐릭터페어를 방문한 이빈을 만날 수 있었다. 만화가 이빈은 <개똥이>, <파리사와 결혼하기> 등의 순정만화로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만화가이다.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없는 나는 그녀가 사인과 함께 자두를 그려주는 것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 캐릭터인줄만 알았던 어떤 곰 캐릭터가 사실은 한국 캐릭터였다는 것에도 놀랐고, 한일 합작 애니메이션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의 실제 모델이 한국 아이돌이라는 사실에도 놀랐다.

행사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즐거웠지만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부족한 점은 조금 아쉬웠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큰 부스로는 웹툰 홍보 부스가 유일했다. 또 한 가지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의 부스가 컸고, 큰 기업의 지원을 받는 캐릭터들만이 넓은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개인이 만든 캐릭터나 대학교의 만화 학과가 만든 캐릭터를 내세워 운영하는 부스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들의 목적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참가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부스들을 많이 방문해주지 않아서 따분해하는 것이 보였다. B홀에 있었던 작은 부스들은 눈에 띄는 조형물도 없으니 더욱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았고, 이벤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왜 그런가 하고 캐릭터페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부스신청 비용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직 인기를 얻지 못한 캐릭터들에게 이벤트기획이라도 지원을 해주었다면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주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캐릭터페어를 갔던 이들 동안 각각 다른 친구와 동행을 했다. 한 친구는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캐릭터페어는 처음이었다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전했다. 다른 친구는 캐릭터는 잘 모르지만 귀여운 캐릭터 인형, 모형들과 사진을 찍고 자신이 만화 <개똥이>부터 좋아했던 만화가 이빈의 사인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꼭 어린이들만 위한 곳은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열릴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도 저력있는 국산캐릭터들이 많이 참가하고 이번 전시의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열린다면 정말 국내외 인기 있는 페어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캐릭터페어 방문기를 마친다.

| 조은영 (KOCCA 대학생 기자) |

